

전남도 11월 친환경농산물 ‘여수 당근’

면역력·눈 건강 돕는 겨울 채소
류용현 농가, 연 50t 당근 생산
비닐멀칭 등 도입해 생산성 향상

전남도가 11월 이달의 친환경농산물로 ‘여수 당근’을 선정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은 대표적 건강채소다.
특히 여수에서 재배되는 신희전5촌 품종은 국내 최대 주산지인 제주 당근과 달리 단단한 조직감과 높은 저장성을 지녀 학교급식과 대량 유통업체에서 인기가 많다.



여수 읍촌면에서 10여년째 친환경 당근을 재배하는 류용현(63) 씨는 축산업을 하다 농업으로 전향한 뒤 지역 농가들과 함께 학교급식용 친환경 당근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 약 2만4천800㎡(7천500평) 규모의 밭에서 봄에는 감자, 가을에는 당근을 재배하고 있다.
〈사진〉
연간 약 50t의 친환경 당근을 생산해 생산량의 70%는 학교급식(여수·순천·광양 등)으로, 나머지 30%는 직거래 카페 ‘농라’ 등 온라인 판매로 연간 9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류씨는 비닐 멀칭 재배법을 도입해 생육기간을 단축하고 잡초 발생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여수의 점질토 특성에 맞춰 2작기 중 1작기는 퇴비 투입과 휴경으로 지력을 관리하고 승용방제기(SS기)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친환경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류용현씨는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이라는 가치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찾아주기 때문에 안정적 판로를 유지할 수 있다”며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읍촌면 친환경 당근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업 재배 면적은 3만5천328ha로 전국 7만428ha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목록화 지켜가는 분들이 있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며 “앞으로 도 지역 농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전남형 친환경농업이 꾸준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순천농협, 고품질 브랜드쌀 ‘순천만 미호미’ 출시

지자체 협력 쌀 재배 시범사업 결실
시민 참여 지역 대표 프리미엄 품종

순천농협이 지역 농업인과 함께 만든 고품질 브랜드쌀 ‘순천만 미호미(美好米)’를 새롭게 선보였다.
순천농협은 12일 “전남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데이’ 행사와 함께 순천만 미호미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순천만 미호미’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미호’ 품종을 활용해 재배한 쌀로 윤기가 많고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찰기와 밥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고품질 쌀 생산에는 주암 지역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30농가가 참여했으며 총 50ha 면적에서 재배됐다. 순천농협은 오는 2026년까지 황전·월등·승주·송광·외서 지역으로 재배 단지를 확대해 200ha 규모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양홍렬 기자



이다.
생산된 ‘순천만 미호미’는 전남·광주 지역뿐 아니라 서울·경기권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브랜드 개발에는 순천시가 참여해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했으며 브랜드명과 포장 디자인 선정 과정에는 순천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민이 함께 만든 브랜드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역 농업의 발전과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시작으로 ‘순천만 미호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순천 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남후 순천농협 조합장은 “‘순천만 미호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순천 대표 쌀로 지역 상생의 상징이자 고품질 브랜드쌀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천 쌀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김장용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강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등 정밀검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섭취하도록 오는 17일부터 김장용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안전관리 연간 추진계획 일환으로 김장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배추, 무, 마늘, 생강, 고추, 파 등 주요 김장 재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에 유통 중인 김

장용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42종과 중금속 2종(납·카드뮴) 정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신속한 회수와 폐기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문화 농산물검사소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지속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보성 조정화 농가, 전남 으뜸한우 경진 종합챔피언

고급육 부문 대상 서병근 등 23농가 입상
영암군·영암축협 최우수 시군·축협 선정

전남도는 12일 “2025년 제41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종합챔피언상에 보성 조정화 농가, 고급육 부문 대상 수상에 광양 서병근 농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축육개량협회 전남광주지역본부(우랑한우)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고급육)의 전문심사위원이 출품육 113마리(우랑한우 88마리·고급육 28마리)를 종합 심사해 우랑한우 20마리, 고급육 3마리, 우수 시·군 및 축협을 각각 3개소 선정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상인 우랑한우 종합챔피언상을 받은 보성 조정화 농가의 한우는 발육과 골격이 우수하고 성장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십자부고, 몸과 다리의 균형이 우수했다.
이는 밀식사육을 하지 않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남도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체계적 계량을 통해 이룬 성과라는 분석이다.
고급육 부문 대상을 받은 광양 서병근 농가는 육성비육부터 발효 사료를 직접 제조해 자유채식하고 있다.
근내지방의 분포와 얇은 등지방, 넓은 단면적 이 조화를 이뤄 육질과 육량 모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부문별 1등인 최우수상에 암송아지 고희 김지훈 농가, 미경산우(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 곡성 조신익 농가, 번식암소1부 영암 문영식 농가, 3부 장성 장행순 농가, 최우수 시·군에 영암군, 최우수 축협에 영암축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순천광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2025년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행사에서 종합 챔피언 등 으뜸한우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협이 선정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량을 통해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한우산업 1번지”라며 “축산농가와 적극 소통하면서 AI 첨단 축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축산업 경쟁력 확보 기반을 구축, 돈 버는 축산,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